

오모리 패총

오모리 패총이란

오모리 패총은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6 초메부터 오타구에 걸쳐 있는, 조몬 시대 후기부터 말기(약 4,400~2,300 년 전)의 유적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S. 모스에 의해 일본 최초로 과학적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발굴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일본 고고학의 발상지로 통합니다.

오모리 패총의 출토품

패총은 사람들이 채집하여 먹은 후의 조개껍데기가 쌓인 것으로, 조개껍데기 외에 동물 뼈, 생선 뼈와 식물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모리 패총에는 조개류나 사슴, 멧돼지 등의 뼈 외에 무늬가 있는 토기, 흙으로 만든 판자, 석기, 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토기의 형태는 다양한데, 깊은 바리 모양인 것, 얇은 바리 모양인 것, 윗손잡이가 달린 것, 귀때가 달린 것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석기로는 큼직한 돌도끼, 제사에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는 석기(석봉·석검)가 있습니다. 뼈로 만든 도구는 낚시바늘, 작살 등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당시 사람들은 어패류나 해조류, 뿌리채소(백합 뿌리 등) 등을 불에 조리한 것, 말린 조개, 나무 열매, 도토리 등을 빻아서 구운 음식 등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비석

오모리 패총의 발굴을 기념하는 비석은 두 개가 있습니다. 1929년에 모토야마 히코이치가 중심이 되어 '오모리 패총'이라고 쓴 가로로 긴 비석(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6초메의 오모리 패총 유적 정원 내에 소재)을 세웠고, 이듬해인 1930년에 사사키 주지로가 중심이 되어 '오모리 패허(貝墟)'라고 쓴 세로로 긴 비석(도쿄도 오타구 산노 소재)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공문서 발견과 발굴 조사를 통해 시나가와구 오이에 소재하는 '오모리 패총비' 부근이 1877년에 모스에 의해 발굴된 장소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발굴 보상금

오모리 패총 발굴에 즈음하여 도쿄 대학은 도쿄부(府)에 발굴 청원서를 냈습니다. 발굴 예정지는 사쿠라이 진에몬의 토지였습니다. 사쿠라이는 발굴 후의 정비 비용으로서 80 엔의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도쿄부의 중재로 50 엔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발굴 보상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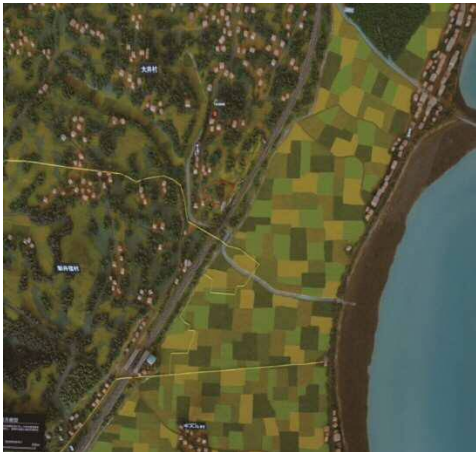
모스 이후의 발굴 조사

1984년에 시나가와구가 실시한 조사 결과, 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년 전)의 패총이 발견되어, 조개껍데기와 짐승 뼈 외에 석기, 뼈로 만든 도구, 토기 조각, 흙으로 만든 귀걸이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모스가 발굴한 패총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최초로 주거터도 발견되었습니다.

포틀랜드와 시나가와구

시나가와구는 1984년 10월 13일에 모스의 고향인 미합중국 메인주 포틀랜드시와 자매 도시가 되어, 상호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2_01_01



오모리 패총 주변의 모형
메이지 14년(1881)의 실측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모형입니다.

2_01_02



바리모양 토기(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추측됩니다.

2_01_03



윗손잡이가 달린 토기(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매달아서 사용합니다.

등불을 키거나 향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2_01_04



석기(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말기(약

4,400~2,3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돌을 간간석기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던

석검이나 석봉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_01_05



뎨돌도끼(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분동형으로 돌을 잘게 깨서 양면

가공하였습니다. 목제의 손잡이에

장착하여 뿌리채소를 파내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칼날로

사용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_01_06



일본 사슴 뿔(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2_01_07



깊은 바리모양 토기(복제)

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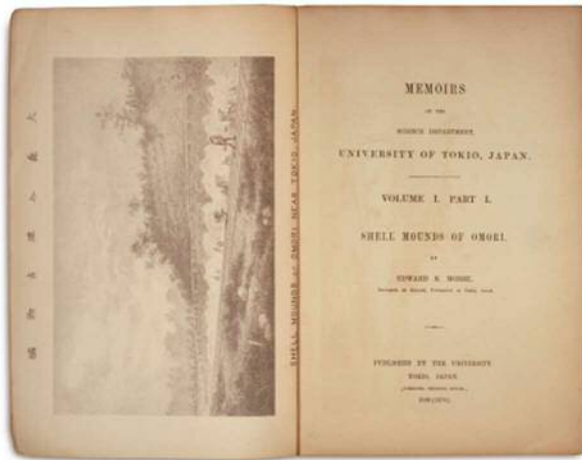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불을 때어 삶거나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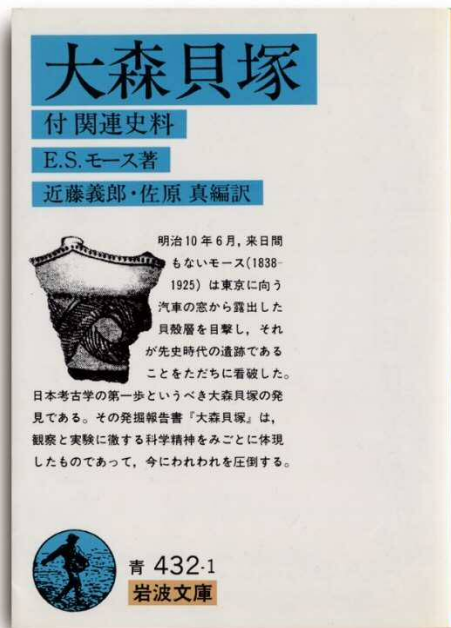
2_01_08



“SHELL MOUNDS OF OMORI” (“오모리 패총”)

E. S. 모스 메이지 12년(1879)
일본 최초의 발굴조사
보고서입니다. 같은 해에 일본어
번역판 “오모리 개허
고물편(介墟古物篇)” (야타베
료키치 역)도 간행되었습니다.

2_01_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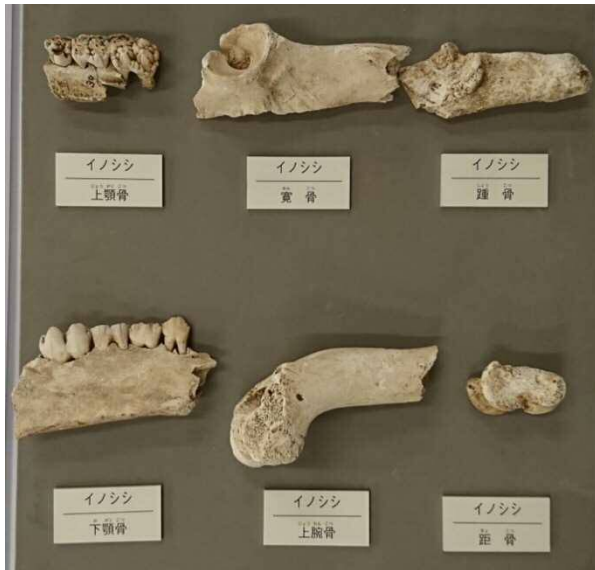


‘오모리 패총’의 현대어 번역

E. S. 모스 지음, 곤도
요시로/사하라 마코토 편집·번역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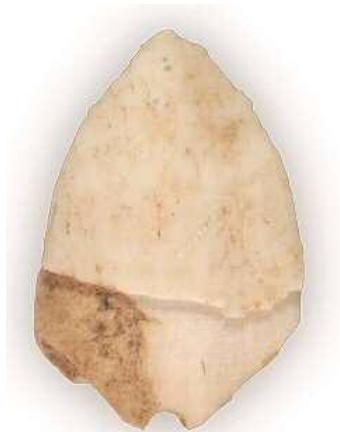
<p>2_01_10</p> 	<p>큰개맛 표본</p> <p>큰개맛은 완족류라는 조개의 일종으로, 모스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p>
<p>2_01_11</p>  <p>측면에서 본 모습</p>  <p>엮어 놓은 모습</p>	<p>얇은 바리모양 토기(복제)</p> <p>메이지 10년(1877) 출토 원사료: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음식물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 토기입니다. 모스는 출토품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헤이세이 5년(1993)의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에 의한 발굴 조사에서는 비슷한 문양의 토기편이 출토되었습니다.</p>

2_01_12



멧돼지의 턱과 다리 등의 뼈
 쇼와 59년(1984) 출토
 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

2_01_13



멧돼지의 송곳니로 만든 화살촉
 쇼와 59년(1984) 출토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멧돼지의 송곳니를 갈아
 만들었습니다. 모스가 발굴했을
 때에도 출토되었습니다.

<p>2_01_14</p> 	<p>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p> <p>쇼와 59년(1984) 출토</p> <p>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년 전)</p> <p>사냥에 사용한 석기(화살촉)로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되었습니다.</p> <p>흑요석의 산지는 도쿄도의 고즈섬이나 나가노현의 와다고개 등으로 한정되므로 오모리 패총의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p>
<p>2_01_15</p> 	<p>주둥이 모양 토기(복제)</p> <p>메이지 10년(1877) 출토</p> <p>원사료: 도쿄 대학 종합 연구 박물관 소장</p> <p>국가 지정 중요문화재</p> <p>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p> <p>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 출토품의 복제품입니다. 몸체가 가장자리 한쪽에 주둥이를 부착한 흔적이 있어 담은 물을 다른</p>

	<p>그릇에 붓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p>
<p>2_01_16</p>  <p>니혼즈카 角 니혼즈카 上顎骨 니혼즈카 下顎骨 니혼즈카 環椎 니혼즈카 軸椎 니혼즈카 肩甲骨</p>	<p>일본사슴의 뿔 및 목·턱 등의 뼈</p> <p>1984 년 출토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 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p>
<p>2_01_17</p>  <p>니혼즈카 中手骨 니혼즈카 上脛骨 니혼즈카 腕骨 니혼즈카 脛骨 니혼즈카 大腿骨</p>	<p>일본사슴의 다리 등의 뼈</p> <p>1984 년 출토 조몬 시대 후기~말기(약 4,400~2,300 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p>

2_01_18



깊은 바리모양 토기

쇼와 59년(1984) 출토

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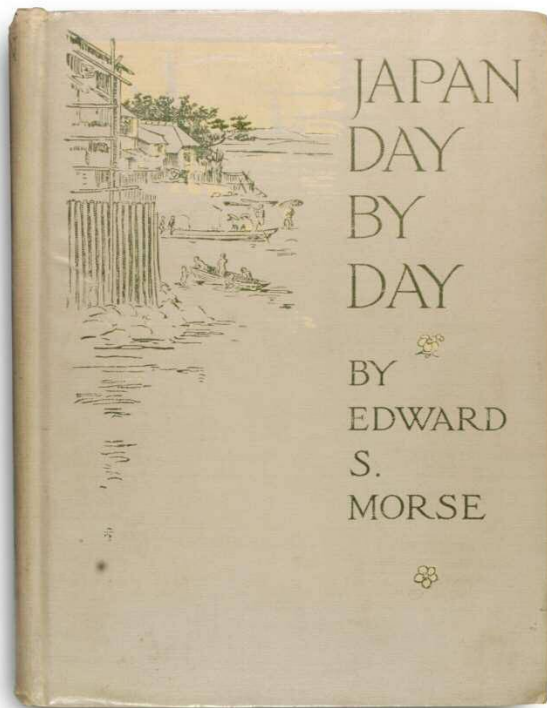
발굴품입니다.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불을 때어 삶거나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2_01_19



“JAPAN DAY BY DAY” (“일본 그날그날”)

E. S. 모스 다이쇼 6년(1917)

일본에 체류 중에 쓴 일기와

스케치를 모아 출판한 것. 오모리

패총 발굴에 대해 적혀 있으며

모스가 스스로 그린 토기의

스케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_01_20



소형 토우

1993년 출토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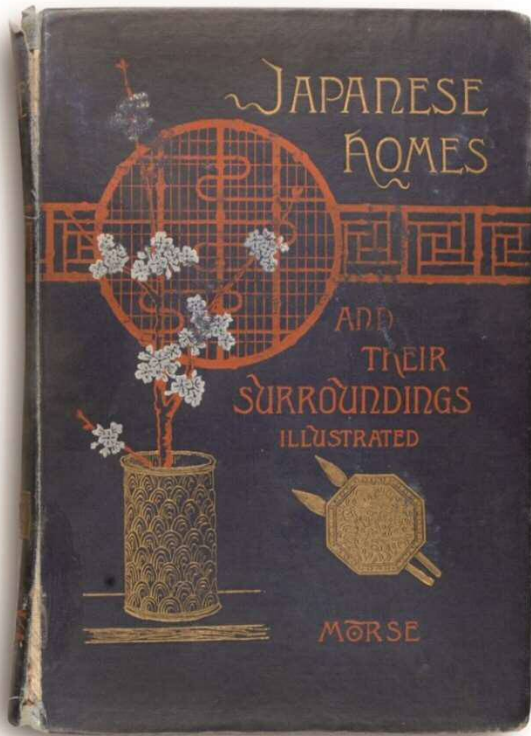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

<p>2_01_21</p>  <p>The image displays several archaeological artifacts. At the top, there are three items: a circular pottery spindle with a central hole, a small fragment, and another circular pottery spindle. Below these are three more items: two circular pottery spindles with decorative patterns and a central hole, and a small fragment. At the bottom, there is a vertical strip showing two items: a circular pottery spindle and a rectangular fragment.</p>	<p>토제 귀걸이</p> <p>1984 년· 1986 년 출토</p> <p>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 년 전)</p> <p>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p> <p>깃불에 구멍을 뚫고, 나뭇가지 등을 삽입하여 구멍이 커진 부분에 귀걸이를 끼웠습니다.</p>
<p>2_01_22</p>  <p>The image shows a single, shallow, wide pottery bowl with a slightly flared rim and a flat base. The surface appears to have some horizontal lines or grooves.</p>	<p>얇은 바리모양 토기</p> <p>쇼와 59 년(1984) 출토</p> <p>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 년 전)</p> <p>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으로 음식물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 토기입니다.</p>

2_01_23



‘일본의 주거-안과 밖’

E. S. 모스 1886 년

모스가 일본 체류 중에 각지를 여행하며 보고 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을 소개한 책.

2_01_24



조개 팔찌

1993 년 출토

조몬 시대 후기(약

4,400~3,200 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

소재: 삿갓조개.

완성하기 전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_01_25



주걱 모양 골기(骨器)

1984 년 출토

조몬 시대 말기(약

3,200~2,300 년 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오모리 패총의 발굴품입니다.

사슴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